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원장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질적력을 시험받도록 만든다. 연일 지속되는 불볕더위에 불쾌 지수가 높지만, 어느 날 문득 소나기라도 내릴라치면 사람들은 허겁지겁 비를 피해 몸을 숨기기 바쁘다.

필자의 서가에는 평소 애용하던 영감을 얻은 만한 그림과 사진 등, 여러 개의 작은 액자가 놓여 있다. 시 한 편이 나오면 그 액자 안의 내용물은 꺼내어 뒷면에 날짜와 시의 제목을 쓰고 서랍 안에 쌓아 둔다.

한 달 전, 필자는 사진 한 장을 우연히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 그 사진을 액자 안에 넣어줬다. 출근 전에 꼭 들여다 보고 시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중인데, 시보다 먼저 칼럼이 그 사진을 불러들여 이곳에 옮긴다.

2023년 8월29일, 경기지역 일간지 포도뉴스에 2명의 기자가 올린 사진과 기사 내용의 제목은 '내 어깨는 다 젖어도'이다. 제목도 시적이지만 그 광경을 촬영한 기자 역시 시인 같기만 하다. 노인이 손수레에 고물을 싣고 힘겹게 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나 보다. 젊은 여성은 한쪽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 한쪽 손엔 분홍색 양산이 아닐까 싶은데 그 양산을 노인을 향해 기울게 한 채 본인은 정녕 비를 맞고 걷고 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폐지 어르신에 우산 내어준 '친사'. 사랑은 비를 타고... 아직 살만한 세상.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만난 분홍색 양산의 여성은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따라 1km 거리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 우산을 한껏 기울여 자신의 몸은 땀방 젖은 채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다"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인가.

신경림 시인(1935-2024)의 「가난한 사랑 노래」가 불현듯 생각난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에/ 방밖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갈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새 정부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하자. 저도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만들면 좋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 기간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을 찾아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면서 했던 말이다. 힘겨워도 낮은 흰 구름으로 위안을 삼고 밤엔 별을 헤며 꿈을 놓지 말자.

거리는 이글거리고 사람들은 죄다 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이마 위에 손바닥 가리개를 한 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더위에 지친 얼굴이다. 간혹 선글라스를 꺼내어 반바지 차림으로 도도히 걷는 사람도 폭염(暴炎) 속에서는 풀 죽은 고춧잎처럼 어찌가 축 쳐졌다.

며칠 전엔 낯선 이가 찾아와 아는 체를 하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는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말을 하길래 몹시 불쾌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한때 도슨트로서 발발어도 조금 하였는데, 그의 눈을 볼 수 없으니 허겁지겁 말하는 것 같아서 조롱당한 느낌이 들고 또 그가 아무리 친근한 척 다가와도 마음이 열릴 리 없으니 마주하는 자리가 모기에 쏘인 영덩이처럼 따갑기만 했다.

눈은 얼굴의 8할이다. 장애가 아닌 이상 상대 앞에서 눈을 감추는 것은 그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많고, 또 정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사람은 결국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노랫말도 있지 않은가? '눈으로 말해요'라고

여름은 인내의 계절인 만큼, 자제력과

기고



신광섭 前 국립민속박물관장·문화재위원

아름답다! 나주 '남평주조장'

1977년 전남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출할 기금액을 적시해 배포한 서슬 퍼런 명령서, 밀주 적발 목표량을 정해 하달한 문서는 어려웠던 시대상을 잘 말해준다. 나주 남평 사람들의 술 공간 100년 술독, 하루에 4-5십 리는 거뜬히 달렸을 배달자전거 등 그따위 5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은 그 자체로 박물관이자 한 편의 흑백영화다.

예부터 주조장은 술 소비가 많은 곳에서 성행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나주평야에서 얼마나 많은 술이 생산·소비되었는지는 1970년대 나주세무서가 관할하던 나주, 영암, 함평, 무안엔 무려 46개 소의 주조장이 있었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지금은 6개 소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농촌인구감소, 잦은 주류정책 변화, 삶의 질 향상은 지역 주조장 운영여건을 어렵게 했고 소비가 준 막걸리의 빈자리를 위스키, 와인, 소주, 맥주가 차지한 까닭이다. 그러나 운영 중인 주조장은 현대화된 체 옛 모습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국가와 시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주조장은 전국에 7개소(경북·충북 각각 2개, 경기·충남·인천 각각 1개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남·북,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대로 노동력에 기반한 농업으로 영위해온 터라 질 좋은 술이 가장 많이 생산·소비됐던 곡창지대 호남에 보존할만한 주조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주 남평주조장을 주목해야 할 까닭이다.

문화유산보존은 가치제(價値財·merit go

ods)로 인식돼야 한다. 즉,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공공재인 것이다. '주조장의 주인은 미생물과 효모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영산강의 물안개, 나주 들판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 나주 사람들의 체취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남평주조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던 주조장을 살려보겠다는 2년 반 전에 귀향해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윤태석 씨의 말이다.

나주 남평주조장이 알려졌으로써 나주와 남평이 알게 될 부대 이익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문화유산을 살려, 잘 먹고 잘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가는 여행지가 대체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나주 남평이 고향인 윤 씨는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이 분야 전문가다. 그의 아내 역시 전신과 문화기획에 능한 문화학박사다. 부부는 주조장을 매입한 10년 전부터는 술을 빚으며 발효를 연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가까이서 봐 온 윤태석 박사는 남평주조장 관리자로 최적적인 사람이다.

보존의 가치가 분명하고, 관리자의 전문성과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관리자가 남평주조장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 지금도 비가 새고 있을 '100년 효도, 남평주조장'의 복원과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나주 남평주조장을 처음 본 순간, "와! 아름답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름답다.' 비가 새고 곧 허물어질 것만 같은 주조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다.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아름답다'이다.

이상기후로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장마철이다. 우선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 걱정이다. 이번 달로 설립 112년이 된 나주 남평주조장도 그중 하나다. 주조장 건축은 술 생산이 목적이었던 만큼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던 여타의 근대건축물과는 달리 보존과 관리가 취약하다.

나주 남평주조장은 견여온 세월만큼 목재는 썩고 함석지붕은 녹슬어 비가 새는 중에도, 주조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잘 남아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발간한 '양조장과 술문화 조사보고서'(2019)는 나주 남평주조장이 현존하는 전국 주(양)조장 중 건물 원형과 유물이 가장 잘 보존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종업원들이 겪었던 애환과 갈등을 첩필과 잉크로 눌러 쓴 편지글은 막걸리보다 더 따뜻한 여운을 준다.

독자투고

때 이른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시원한 곳을 찾기 위해 바다나 계곡으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처럼 무더운 날에는 바다나 수영장은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는 즐거움 휴가가 슬픔으로 변하기도 한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 후 수영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깊은수심 구간이나 급류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급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지켜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로 수영금지 안내표지판이 있는곳에서는 절대 수영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물에 들어가기전에 심장마비 등 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해야 한다.

셋째로 가장중요한 점은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 무리하게 수영을 하지 말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과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훈·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용하고 입수해야 한다. 셋째로 가장중요한 점은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 무리하게 수영을 하지 말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과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훈·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민생 추경안 안도, 새 정부 내년 본예산에 사활 달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지난 주 국회 통과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의 국비 188억원이 복원돼 하반기 착공 가능성을 키웠다. 국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으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뜻을 받아들여 광주시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친 끝에 가까스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천46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 등으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에서 15억 증액된 200억을 확보했으며,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은 국회 심의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돼 연내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 전남도는 특히 소비 쿠폰이 최종 반영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앞두고 있어 위축된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 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는다. 1차는 오는 21일부터 15

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준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3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0만원이 추가된다. 전남의 경우 최대 8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도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되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현안 해결과 민생 회복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다.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처럼 한발 앞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로 선순위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대응해야 한다.

추경은 일단 합격점이다. 앞으로 분선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 명운을 걸어야 한다. 시·도민들의 기대치 역시 더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도시 광주의 힘 알린 세계양궁선수권 성공 축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지난 주말 열린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성공 기원 시·도민 페스티벌에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1.2km의 구간을 LED 촛불을 들고 함께 걸으며 대회를 널리 알렸다. 앞서서 랜덤 플레이 댄스, 양궁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지려져 관심을 모았다.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세계양궁선수권 본업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살아숨쉬는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이미 프레대회를 통해 완벽한 개최 역량을 입증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중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슬로건으로 내건 국제스포츠 행사다. 평화와 연대 메시지 전파, 저개발 국가 양궁기술 지원을 통한 위상 제고, 노플라스틱 친환경대회 실천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

고 있다. 게다가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성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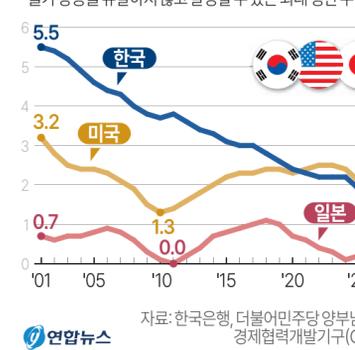
세계양궁선수권은 현재 69개국 710명,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은 40개국 416명의 선수단이 등록을 마쳤다. 조직위원회는 숙박, 수송, 경기 운영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면밀 점검해 최상의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양궁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등은 현지실사를 통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가족과 연인, 친구, 외국인 등이 찾아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두려움 게 없었다. 선물도 받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광주는 대한민국 양궁의 본산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다. 흥행은 따는 대상이다. 우리 선수단은 좋은 성적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세계양궁선수권 경기 퍼포먼스는 광주가 매력적인 스포츠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그래픽 뉴스

한미일 잠재성장률 추이

OECD 2025년 6월 발표 보고서 기준 추정치 잠재성장률: 잠재GDP\*의 증가율 \*한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자료: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7월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집현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졌다. 201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p)나 급락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편집국, 광고문의, FAX,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10)제·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